

CSL Mission 소식

His Story

(CSL 소식지는 연 3회 발간됩니다.)

1. 이인규(I)&이정민(J) 선교사 이야기

저(J)에게 있어 이번 학기는 여느 때보다 더 바쁜 학기였습니다. 신학 대학원 과정도 생각보다 과제가 많아서 수면 시간을 줄여야 했고, 새롭게 알게 된 일본인들(넌크리스천)과의 교제도 소홀히 할 수 없어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또한 넌크리스천을 위한 성경공부 교재를 만들고, 출판 과정 중에 있는 한국어 교재들을 다듬어서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CSL아카데미 홈페이지를 직접 제작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특히 홈페이지는, 이 방면에 전혀 지식이 없던 터라 하나 하나 정보를 찾아 공부하면서 만들어갔습니다. 한 페이지를 만드는 데 하루종일 걸리기도 하고 밤을 새우기도 했는데, 다음 날 보니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만들기도 했습니다. 박사논문을 쓸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몸이 많이 허약해졌습니다. 몇 년 전만해도 하루 이틀 정도는 잠을 안 자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무리인가 봅니다. 그래서 지난 12월부터 '어지러움증(가만히 누워 있어도 사방이 빙글빙글 돌고, 그 때문에 멀미가 나서 계속 구토를 하게 됨)'을 앓고 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너무 힘들어서 병원 처방약을 먹어야만 했으나,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수면시간을 줄이면 금방 다시 어지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수면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려고 노력하면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때문에 CSL소식지도 늦어졌습니다. 이제는 영양제도 먹으면서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CSL선교 사역이 시작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전 소식지를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이번 학기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들과 주님과 동행한 흔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일상에서 'His Story'를 살아내고 싶다는 소망으로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흔적들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세탁기 사건입니다. 최근에 세탁기가 고장이 나서 새로 장만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희들 형편을 아시지요? 구입 경비도 그렇지만 설치하는 작업(일본에서는 기기 구입과 설치 비용을 각각 별도로 받는데,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 설치 비용이 더 비싼 경우가 많음)이 더 어렵습니다. 아버지의 스토리를 기대하며 일단 중고매장에 가보겠습니다."하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중고매장에 들어서자마자 곧장 세탁기 쪽으로 갔는데, 5년 된 대형 드럼세탁기가 있었습니다. 일본집들이 매우 좁기 때문에 대형 가구의 중고 거래는 거의 드뭅니다. 큰 가구를 사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 중고 상점들도 좁은 매장에 큰 가구를 받아서 놓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대형 세탁기가 큰 자리를 차지하며 놓여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준비해 놓은 것으로 알고 뚜껑도 열어보지 않고 2만엔(20만원)을 주고 바로 사왔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15만엔(150만원)정도 하더라고요...

문제는, 기존의 세탁기를 빼내고 드럼세탁기를 넣어야 하는데(세탁기가 2층의 마루 복도 위에 있기 때문에 배수를 잘못 연결하면 온 집이 물바다가 됨), 이런 일을 해 본 적이 없는 저희들로서는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출장 기사를 부르면 세탁기 비용만큼을 더 들여야 했기에, 일단 뚜껑을 열어 호스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호스가 가위로 잘려진 채로 들어있었습니다. 연결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꼼꼼한 일본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순간 이것은 "아버지의 스토리"가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고센터 직원과 통화를 한 결과, 중고센터 쪽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전문 기사를 불러서 설치를 해 주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전혀 신경쓰지 않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정말 재미있는 분입니다. 이전에 저희가 이사를 할 때도 재미있는 아저씨를 보내 주셔서 말도 안 되는 스토리를 만드셨는데, 이번에도 정말 코미디 같은 스토리입니다... 세탁기 호스를 가위로 잘라서 중고상점에 팔 생각을 한 원래 주인도 이상하고, 전문 매장에서 세탁기를 꼼꼼히 살펴보지도 않고 구입해서 매장에 전시한 것도 이상하고, 좁은 매장에다가 구매자가 거의 없는 대형 세탁기를 놔 둔 것도 이상합니다... 아버지의 스토리는 언제나 엉뚱하고 재미있습니다! ^^

소소한 일상 속에서의 재미있는 사건들이 더 있으나 이번 소식지에서는 가장 코믹했던 세탁기 스토리만 나누겠습니다. 그보다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번 학기 이슈였던 '동역자 요청'에 대한 주님의 일하심들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직접 움직여 가시는 것을 보고 있으면 정말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그 일하심에 조금이나마 저희들이 사용된 흔적이 있으면 더더욱 감격하게 되는데요... 기도가 실현되어 진행되는 것을 보는 것만큼이나 가슴 벅찬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가 시작되면서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 중 하나는 동역자들(CSL선교 사역에 동참할 선교사들)을 보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의 커뮤니티 범위가 그리 넓지 않아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형편이 못 되는데, 기도하면서는 이런 형편에 있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께만 매달릴 수 있으니 말입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요청에 아버지는 즉각적으로 움직이셨습니다.

1) 그렇게 기도한 지 몇 주 안 돼서, 알고 지내던 선교사님 한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일본의 남쪽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곧 사역지를 옮겨 동경(CSL선교회 근처)으로 오시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전화선 너머로 들으면서 '그렇구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예전에 '일본어 교사'로 계셨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실은 이렇게 통화하기 바로 전날 밤에, "아버지, CSL아카데미에서 일본어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일본어교사를 보내 주시되 선교사로 헌신한 분으로 보내 주세요."하고 기도했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기도 내용을 나누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님이 앞으로 어떻게 협력하게 하실지 다음 학기가 기대됩니다.

2) 기도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멀리서 CSL선교회를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계시는 권사님(아직 한 번도 뵈진 적이 없음)이 어느 선교사님 부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두 사람도 그날 서로 처음 만났다 했습니다. 권사님이 출석하고 계시던 일본인 교회의 목사님이 인플루에 걸려 그 주의 예배가 없어지게 되자, 권사님은 근처의 다른 일본인 교회를 찾아가셨는데 거기서 이분들을 만나셨던 것입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CSL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이 선교사님들은 즉시 CSL로 연락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들은 약 4-5년 전에 일본에 오셔서 줄곧 일본인 교회의 협력 선교사로 계셨는데, 최근에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며 기도하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특히 사모님은 고등학교 교사로 계셨던 터라 선교회 홈페이지(학습을 통로로 사용하여 선교한다는 점)를 둘러보는 동안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다며, CSL선교회를 꼭 방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오셔야 하는 수고를 마다하고 저희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2박 3일의 짧은 일정이었었는데, 이틀 밤 내내 새벽2-3시가 넘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들 안에 총만한 연합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퍼즐이 딱딱 들어맞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놀랐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주님이 개입하신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님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동역을 위해서 몇 가지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주님이 남은 과정들을 어떤 스토리로 이어 가실지 벅찬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3) 같은 무렵에, CSL동역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던 한 자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한국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사람이 있는데(동경에 산다는 말을 듣고는 일본에서 한번 보자고 약속했었다고 함), 그분을 방금 만나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파송 받아서 일본인 교회의 협력 선교사로 와 있고, 현재 살고 있는 곳이 CSL선교회가 있는 바로 옆동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했기에 영어가 유창하고, 피아노 전공자라고 했습니다. 그 자매는, 이분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동역자일지 모른다고 저희한테 이분들을 빨리 만나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이, 실은 평일에 키즈영어 수업을 담당해 줄 교사가 필요했고 다음 학기부터는 피아노도 개설될 예정이 기 때문에, CSL아카데미 사역에 당장 필요한 분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연결시켜 주신 것이 확실하다는 생각에 연락을 하여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놀랍게도 이분들의 현재 상황과 저희들의 기도 제목들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분들을 통해서 소개 받게 될 사람들(일본 선교에 소명을 둔 일본어 강사와 중국어 강사) 역시 저희가 주님께 부탁드렸던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정말 이 사역의 주인이시며 우리들 중 그 누구보다도 성실히 일하십니다! 아버지의 사역에 저희들을 동참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이처럼, 이번 학기는 한 사람도 아닌 여러 명을 한꺼번에 보내주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강권적으로 CSL을 시작하게 하셨던 처음의 그날처럼, 일본 땅을 향한 아버지의 급하신 마음이 전해져서 또 다시 울컥했습니다. 평생 이 마음을 붙들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2. CSL선교회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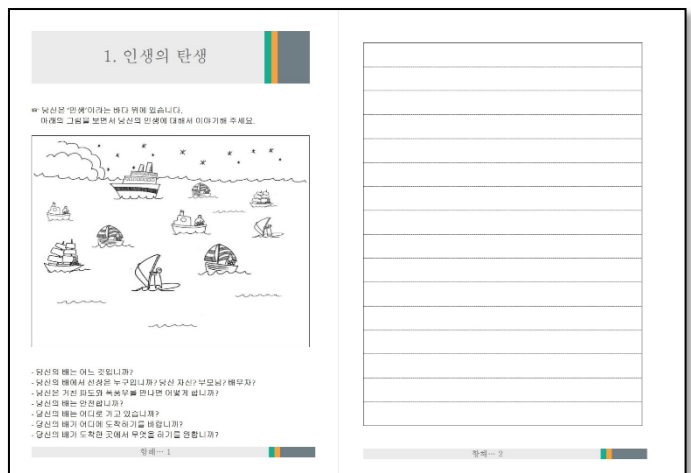
- 일본인들은 다양한 장르의 지식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넉크리스천 중에서도 성경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CSL아카데미에서 프리토킹용으로 사용하는 ‘수다수첩’을 다루다 보면, 성경공부를 해 보고 싶다는 일본인들을 쉽게 만나게 됩니다.

이들을 위해, CSL 출판사에서 넉크리스천을 위한 성경공부 교재(한국어/일본어)를 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마지막 감수 단계에 있습니다.

이 교재는 인생이라는 바다를 향해하는 과정을 다룬 것으로서, 학습자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그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스스로 질문하면서 고민해가는 내용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교재의 끝으로 가게 되면, 학습자는 이 항해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항해를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넉크리스천들이 쉽게 알 수 없는 기독교 용어(복음, 중보, 구속, 영생 등...)를 사용하지 않고 이를 일반적인 말로 풀어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부록으로, 넉크리스천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것들(헌금, 십일조, 주일성수, 그룹 모임, 이단 등...)을 Q&A로 넣어서 간략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교재가 성경에 관심을 보이는 일본인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어, 이곳 일본 땅에 속히 복음의 계절이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 다음 학기부터는 CSL아카데미에서 일본어 교실과 피아노 교실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한국어 수업이 성인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다음 학기부터는 아동들을 위한 ‘한글 학교’가 개설됩니다. 특히 한글 학교에 오는 아이들은 일본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한국인 아이들 또는 부모 중 한 명을 일본인으로 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자라기 때문에, 문화적인 정체성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CSL아카데미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 일본에서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이 공휴일이 아닙니다. 평상시대로 회사에 가고 등교를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가 세계적인 이벤트 날로 인식되다 보니, 일본인들도 저녁에 일찍 퇴근해서는 식구들과 함께 모여 치킨과 케이크를 먹습니다.

이 날은 일본인들이 KFC와 제과점 앞에서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풍경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고 있는 일본인들은 극히 드뭅니다. 크리스마스가 마치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와 같은 하나의 이벤트일 뿐이지, 그 유래와 역사를 궁금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CSL아카데미 학생들과 일본인 친구들을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하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를 덧붙여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매우 진진한 표정으로 듣고 있는 일본인들을 보면서 가슴 한 켠이 시려 왔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처음 들어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땅에서 나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일본인들은... 복음에 있어서는 아마존 정글 속의 원주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날 참석했던 일본인들은 집으로 돌아간 후에 감사 메시지를 전해 왔는데, 매우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기뻐했습니다. 특히 어떤 이는 ‘술을 먹지 않고도 이렇게 즐거울 수 있네요~’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고 무지한 이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려주어야겠다는 마음을 안고 기도를 이어갑니다...



3. 복음 이야기

(선교회 홈페이지에 소식지를 올리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이름을 이니셜로 표기하겠습니다.)

- 이번 학기 가장 큰 기쁨은 T 군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T 군은 24살된 청년으로, 9월 학기부터 CSL아카데미의 한국어교실에서 공부하기 시작한 학생입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세 번째 수업을 마친 날이었습니다. 잠깐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T 군이 십자가 모양의 팬던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T 군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 십자가 모양이 T 군한테 어떤 의미가 있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T 군은 특별한 의미는 없다며 그냥 이 모양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J)에게 ‘이 아이를 너에게 맡긴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즉시 T 군에게 이 십자가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분이 바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사람과 교제하며 살아가신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T 군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사람을 만들었다고 생각된다는 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눈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T 군에게 제안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T 군도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으로서 그 창조된 목적에 맞게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내일(일요일) 내가 있는 교회로 오면 자세히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T 군은, 내일 혹시 시간이 나면 교회로 오겠다고 대답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T 군은 교회에 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T 군은 매주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매주 성경공부를 통해서 진지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약 5개월이 지난 지금, T 군은 신약성경의 복음서를 모두 읽었으며 사도행전을 읽는 중입니다.

놀랍게도, 최근에 T 군에게 한국인 여자 친구가 생겼는데(일본어와 한국어의 언어교환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그 친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주에 T 군이 한국에 다녀왔는데, 여자 친구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하네요... 주님은 정말로 참 좋으신 분입니다!

- 최근에 H 상은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워낙 에너지가 넘치고 활동적인 분이셔서 본인의 나이보다 10년은 더 젊게 살아가고 계셨는데, 요즘은 나이 탓도 있고 해서 평소보다 자주 아프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한국어교실에 오시는 것도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몸이 좀 약해 지신 것이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더 수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더욱 솔직해지셨거든요.

이번 학기에 H 상과 일대일로 매칭된 한국어 튜터는 성산교회 사모님이었는데, H 상이 사모님을 참 좋아하십니다. 사모님이 일본어 발음을 연습하시겠다고 H 상에게 요한복음을 일본어로 읽어서 녹음해 달라고 부탁하셨는데, H 상이 그 부탁을 아주 열심히 들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사람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찢러 쪼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넌크리스천들에게 요한복음을 읽히면서 한글을 익히게 하다보니, 매번 말씀의 운동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H 상에게도 속히 말씀의 운동력이 드러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 L 상은 영어로 프리토킹을 하고 있는 해경 출신의 엘리트 남성입니다. 최근에는 정년 퇴임을 하고 해운 관련 회사의 고문으로 계십니다. 영어프리토킹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러한 대화들이 너무나 신선하다면서 한 주 동안 이 시간이 제일 기다려진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새로운 튜터(I, 이인규 선교사)와 함께 두 번째 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는 기적에 관한 테마로 대화를 나누는데... L 상은 아주 진지하고 지적인 태도로 “사람은 돌에서 진화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J)는 튜터로부터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외국어를 세 개나 구사할 줄 아는 엘리트 신사(일본에서 흔하게 볼 수 없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이것이 일본의 현실입니다.

그날 튜터(I)는 L 상과 열띤 대화를 했고, 이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이야기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영어로 이야기했고(영어 프리토킹 시간이므로) 나중에는 일본어로 이야기했는데,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듣게 된 L 상의 충격은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어느날은 튜터(I)와 함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L 상은 다시 태어나서 지금의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튜터는 윤회를 통해서는 가족들과 다시 만날 수는 없으며, 다시 만나고 싶다면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L 상은 또다시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윤회라는 것이 없고, 이 세상에는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다는 이야기에 놀라워 했습니다. 그리고는 “크리스천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평안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튜터가 L 상도 크리스천이 되면 어떻겠냐고 물어 보니까, L 상은 “지금은” 크리스천이 되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지금은”을 몇 번이나 강조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여운을 남긴 것이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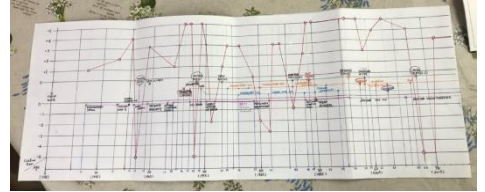
그날 L 상에게 복음이 들어갔으니, 이제는 L 상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이 복음의 두드림에 L 상이 마음의 문을 언제 열게 될지... L 상이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날을 기대하며 기쁘게 기도합니다.

- K 상은 L 상이 소개해서 데리고 온 노년의 신사입니다. L 상처럼 은퇴 후에 어느 회사의 고문으로 있는 할아버지

입니다. K 상도 영어 프리토킹을 하는데, 손녀만한 나이(20대 후반의 자매)의 튜터와 매칭되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오랫동안 혼자서 지내던 터라 이렇게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이 정말 즐겁다고 했습니다.

하루는, 사랑에 대한 테마로 프리토킹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K 상이 미리 영어 문장을 만들어 오시는 편인데, 그날은 첫 시작부터 신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K 상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찾아서 가져왔는데, 집에서 찾은 영일 사전에 사랑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이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최고의 사랑이다.” 튜터를 통해서 전해 들은 대강의 표현은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K 상이 가지고 있는 사전이 궁금해서 물어보니, 자기 집 책장에 있던 것인데 누가 사용했던 것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K 상의 가족 중 누군가가 크리스천이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느 날은, 다음 시간에 인생이라는 테마로 프리토킹을 하니까 미리 인생그래프를 그려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K 상은 긴 종이 위에 모든 가족의 인생그래프를 그려온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꼼꼼히 자를 사용하여 그려 왔습니다. 마치 건축 도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K 상은 처음으로 이런 것을 해 봤다며, 이것을 준비하는 한 주간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들을 누구와도 나눠본 적이 없었던 K 상이 측은해 보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일본인들 모두의 공허함일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해도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나눌 수가 없는 것이 일본의 문화입니다. 나의 이야기로 상대방을 당황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듣기 불편한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K 상은 이번 학기에 등록한 학생이기에 CSL에서 마련했던 크리스마스 파티에 처음으로 참석하고는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며 계속해서 자신을 초대해 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K 상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크리스천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그 기도가 쌓였을 텐데... 누구였을까... 마치 탐정이 된 기분이 듭니다. K 상과의 교제를 더 이어가면 알 수 있겠지요...

- T 상은 지난 학기에 우리들(CSL강사와 스태프들)에게 딸의 임신에 관한 고민을 털어놓았었습니다. 그래서 T 상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돼요. 딸을 위해서 기도할게요.”라고 말해 주고는, 주님께 기도해 왔었습니다.

우리는 T 상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주님은 언제나 이러한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달이 지나도 T 상으로부터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T 상의 마음이 어려울까 봐, 어떻게 되었는지 먼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석 달 정도가 지났을 때 T 상이 딸의 임신 소식을 알려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가 기도를 시작한 날로부터 약 2주 정도 지났을 때 임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T 상이 이 소식을 즉시 알리지 않고 있었던 것은, 임신하고 석 달이 지날 때까지는 소문내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해야만 안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일본의 민간 속설).

얼마나 감사한지... 역시 우리 아버지입니다!

저(J)는 T 상에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며 몇 번이나 힘주어 말했고, T 상도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 같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T 상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T 상이 몇 번의 사건을 더 경험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 N 짱(20대 후반의 여성)은 가끔씩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나라로 취업이 되는 바람에 못 본 지가 두어 달 됩니다만, 우리 교회 성도의 친구여서 가끔 소식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전에, N 짱은 예배 중에 설교를 들으며 울기도 했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은 자기 연민에 젖은 감상이거나 이름 모를 신에게 기원하는 행동일 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 N 짱과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날도 예배에 참석해서는 설교 중에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따로 불러서 예수

남께 N 짱의 인생을 맡기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N 짱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며 우선 성경을 읽으며 천천히 알아가도록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J)는 N 짱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일본인들이 가끔씩 신사나 절을 찾아가서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N 짱은 이와 비슷한 마음으로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닌가 싶어, 언제까지 이런 무의미한 행동을 하고 있을지...

N 짱은 지금 다른 나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가끔씩 교회에 간다고 합니다. 다음 번에 만나게 되는 날에는 주님을 따르겠다는 고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 짱에게도 이미 복음이 뿌려졌기에, 그녀가 말씀을 꾸준히 읽기만 한다면 반드시 그 영이 깨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 S 씨는 한국인입니다. 일본에 온지 5년 되었고 일본인 아내와 신혼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I)에게 연락이 왔는데 커리어에 대한 상담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 만나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S 씨가 저의 경험에 대해서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고,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동안 S 씨는 진지하게 제 말을 듣고 있더니, 자신도 군대에서 교회에 나갔으며 거기에서 세례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교 집안에 두 신이 있어서 아버지가 실직하게 되었다는 할머니의 말씀에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S 씨가 군대에서 교회에 간 것은 아마도 교회 생활이 좋았기 때문이었던 같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야 했는지, 왜 부활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S 씨에게 복음을 들려준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 S 씨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젯밤에 오랜만에 자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마음이 참 평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또 S 씨가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의 근황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끝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지 늘 생각하며 바른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답장을 했습니다. 봄이 되면 또 만나자고 했는데, 이번에는 S 씨가 용기를 내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속히 봄이 오기를 바라며, 그때까지 더 힘차게 기도합니다.

- 저(I)의 회사 동료인 B는 네팔 사람입니다. 굉장한 엘리트입니다. 국비장학생으로 일본에 유학을 왔고, 소니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미국의 켈로그에서 MBA를 했습니다. 그 후에 맥킨지에 입사했으며 작년에 현재 직장인 오라클로 전직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B의 남편도 동경대학을 나와 현재는 보스턴컨설팅에서 근무하는 엘리트입니다. 누구나 부러워 할 만한 사람이지요...

B는 네팔에서 미션스쿨에 다녔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은 없습니다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작년 부활절 날에 교회에서 나눠주었던 선물 세트를 회사에 가져가서 B에게 주면서 부활절의 유래(복음)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같은 팀에서 일하다 보니, 그날 이후로 B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자주 생겼습니다. 아마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점심 식사를 하는데 B가 갑자기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자폐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너무도 완벽해 보이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실상은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동안의 가슴앓이가 얼마나 컸을까요... 저는 B의 아들과 가족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스토리를 볼 때,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B의 가족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스토리가 정말 기대됩니다.

4. 운영 이야기

- CSL선교회의 홈페이지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침 도메인 계약 기간도 끝이 나는 바람에 새로운 주소로 이전하였습니다. 사실은 홈페이지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만들다 보니 선교회의 성격과 맞지 않은 주소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에 사용하던 주소로는 접속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주소 이전을 망설이기는 했으나 회원수가 많지 않은 지금 당장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교 관심자들에게 여러 문의를 받아왔는데, 이 때문에 홈페이지에 무엇이 더 설명되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난 1년간은 저희들에게 기도를 쌓게 하시면서 주님이 닦아 놓은 길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이 걸음마에 함께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한 발을 내딛습니다.



www.cslmission.org

- CSL선교회의 조직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이사회와 위원회의 조언을 받으면서 세 개의 영역(선교사 관리부, 아카데미 사역부, 출판 사역부)을 운영합니다. 각각의 부서를 담당하는 부장을 세우고 그 아래에 팀장을 세워서, 전체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협력 교회의 목사님들로 구성되는데, 교회의 성도들이 자원봉사자(튜터)로 성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 성도들은 CSL에서 튜터로 봉사하면서 일대일로 년크리스천을 만나,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돕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이 년크리스천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게 되면, 성도가 이 년크리스천을 자신의 교회로 인도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돌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의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CSL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십니다. 선교회와 교회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일본 영혼을 품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그동안 간간히 CSL아카데미의 본사로 사용될 건물을 찾고는 있었으나 주님이 본격적으로 건물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은 몇 달이 안 됐습니다.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주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한 곳을 계약하여 4월부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건물을 임대할 때 보증회사의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임대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임대할 수가 없고, 이 심사에 통과해야만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저희의 기도는 항상 동일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은 어둡습니다. 주님이 직접 선택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심사를 통과하면 감사하고, 심사에 떨어지면 더더욱 감사합니다(우리가 잘못 선택한 것이니 정말 다행인 것이지요).

이번의 경우에도 주님의 개입하심을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너무나 마음에 드는 곳이 있어서 흥분된 마음으로 신청서를 넣었는데 2주(보통은 2-3일만에 결과가 나옴)가 지나도록 연락이 없다가 결국은 심사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후보로 생각하고 있던 곳을 신청했을 때는 바로 다음 날 심사에 통과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역시 멋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아니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건물은 여러가지 보수해야 할 부분도 많았고 특히 간판을 건물에 달게 되면 그 비용이 간판 크기에 따라 매달 3~6만엔(30~60만원)씩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건물은 이전 세입자가 내부를 잘 꾸며 놓았는데 그것을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했을 뿐 아니라, 건물이 길가에 있어서 세 면이 건물 외관이며 그 면을 온통 간판으로 덮어도 비용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일본의 상식적인 발상이 아님. 건물 주인이 매우 개방적인 사람이어서 가능함). 더욱 감사한 것은, 4월부터 임대 비용이 발생하지만 내부를 리폼할 수 있도록 3월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해진 규칙 속에서 살아가며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매우 싫어하는 일본 사회에서 이렇게 파격적인 경우를 만나기란 참으로 쉽지 않은데... 주님은, 저희가 작년 초에 이사 과정에서 경험했던 ‘2월의 기적’을 또다시 보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 아카데미 건물의 임대가 4월부터 진행됩니다. 그 전에 리폼(내부 공사와 간판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기자재들을 들여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 임대를 위해서 첫 달에 큰 금액(보증금 2개월분/ 예의금 1개월분/ 보증회사보험금 1개월분/ 부동산수수료 1개월분/ 첫 달 임대료 1개월분... 약 140만엔(1400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 비용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리폼 견적만 300만엔(3000만원)이 나왔는데, 역시 일본에서는 너무 비싸더군요. 인건비와 재료비가 한국의 10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통한 리폼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들

이 직접 바닥과 벽을 보수하고, 간판도 최대한 한국에서 제작하여 가져오고, 기자재도 중고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니, 주님이 모두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처음 왔을 때, 집 안에는 가구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유학생살을 마치면서 우리의 경제 형편은 제로가 되었고, 그 상태에서 일본으로 왔기 때문에 당장 월급을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텅 빈 집의 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매월 월급날이 되면 가구를 하나씩 장만해 놓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재정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때의 과정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미 훈련된 상태이기 때문에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은근히 이 모형이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최선을 다해 더 절약하면서 비용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 기도 동역**

동역하는 교회와 선교사들 및 성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많아도 더 요구되는 것이 기도 동역자들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와 선교 단체들이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CSL아카데미에서는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치열하게 ‘영’을 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터에 내보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미의 심정으로 기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래, 4대 사역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CSL선교회의 4대 사역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자고 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SL선교회의 4대 주요 사역>

1. 선교전략으로서 CSL아카데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2.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을 본인의 집 근처에 있는 건강한 교회에 등록시켜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함께 동역하는 자원봉사자들을 헌신된 주의 일꾼이 되도록 도전합니다.
4. CSL아카데미의 수익금 전액으로 일본 현지 교회와 선교사들, 그리고 일본인 신학생들을 후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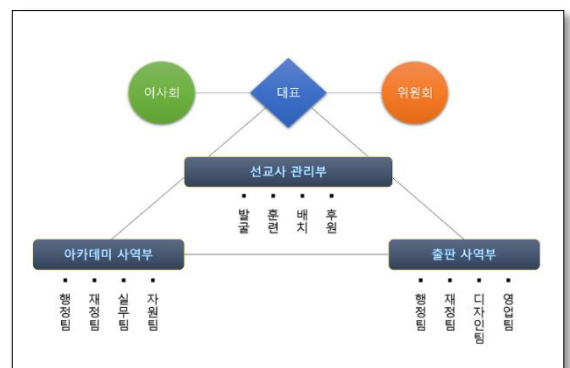
*** 은사 동역**

CSL선교회의 조직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영역에서 다양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운영하는 데에 일손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단 한 시간만이라도 함께 동역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역의 종류에 따라서는 출근하지 않고 인터넷 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출근하는 경우라 해도 상주하지 않고 시간을 정해서 출근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CSL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주님의 일하심을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적극적으로 쓰여지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그냥 흘려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CSL 동역하기](#) (클릭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 시간 동역**

CSL선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통로’는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이들이 년크리스천들을 1:1로 만나면서 그들에

게 크리스천의 모델을 보여 주게 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수강하는 학생이 오면 즉시 1:1로 매칭이 됩니다. 주 1회 1시간씩만 시간을 내어 주면 되고, 한 명의 수강생과 10회만 만나면 됩니다. 만남 시간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으며, 10회 후에 한동안 휴가 기간을 가졌다가 다시 시작해도 됩니다. 만남 시간을 보내는 동안의 역할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자료와 내용은 선교회에서 제공하며, 주어진 방식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복음 증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제1의 소원입니다. 복음의 통로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동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CSL 동역하기](#) (클릭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 동역

약정후원금은 CSL아카데미의 운영금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재정 동역자들은 CSL아카데미의 운영자들입니다. 이 약정후원금은 CSL아카데미의 운영 전반에 필요한 비용(장소 사용, 기자재 및 자료 구입, 홍보 등), 스태프 선교사들의 선교비 지원, CSL출판 서적의 인쇄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CSL아카데미와 출판사의 수익금은 일본 선교와 현지 교회를 후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교회가 없는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고, 목사 없이 성도들만 모여 있는 무목 교회에 목사를 보내고, 경제적인 지원이 없어 문을 닫고 있는 교회를 돕는 일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진국 중에 유일하게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는 이 일본땅이 속히 하나님을 아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당분간은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데 재정이 사용될 것 같습니다.
현품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slmission2018@gmail.com

- 노트북/넷북 (주요기능: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 윈도우10이상)
- 프로젝터
- 사무용 프린트기(복사기 포함)
- 피아노(전자 피아노 포함)
- 에어컨
- 냉장고
- 정수기
- 전자렌지
- 전기밥솥(대형 - 20인분 정도)
- 프리이팬이나 냄비 등 조리도구(가능한 한 큰 것)

*이 외에, 무엇이든지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CSL 동역하기](#)

(클릭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제목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프린트하시거나 사진을 찍은 후, 들고 다니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CSL Mission 기도 제목

1. 복음을 위하여

- T군이 멈추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 H상이 남은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그 마음이 더 가난해지길
- L상이 '복음의 두드림'을 계속해서 느낄 수 있도록
- K상이 부활절 행사 때 참석하여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 T상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기회가 자주 생기도록
- N짱이 동경에 오는 날(4월 말경),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 S씨가 다시 주님의 부르심에 용기내어 나아올 수 있도록
- B의 아들을 통해서 그 가족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길

2. 사역을 위하여

- 일본어 성경공부 교재 및 주일학교 교재의 제작에 필요한 지혜와 인력 필요
- 복음이 필요한 넌크리스천들이 CSL아카데미로 모여들도록
- CSL아카데미 홈페이지가 많은 일본인들에게 알려지도록
- CSL선교회의 도움이 필요한 현지 교회나 선교사들을 알게 해 주시도록
- 아카데미 건물의 리폼과 기자재 마련을 위해서

3. 동역자들을 위하여

- 스태프들의 건강과 시간관리를 위해, 그리고 스태프 충원을 위해서
-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 기도 동역자들이 많이 모이고, 이들이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있도록
- 재정 동역자들이 늘어나고, 약정후원금이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도록

www.cslmission.org